

일본 사가현 온천욕 있는 여정에서 치유의 진수 맛본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온천, 고운 하늘과 바다, 초록빛 싱그러운 차밭은 일본 사가(佐賀)현을 대표하는 풍경들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빛깔의 도자기와 청정 산수(山水)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더해져 여행자는 헤어날 수 없는 평온과 풍요로움에 젖어든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우레시노, 누구나 미인이 되는 온천 마을

‘즐겁고 기쁜 들판’이란 뜻의 우레시노(嬉野).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그맣고 소박한 도시지만, 목욕을 세 번 하면 누구나 미인이 될 수 있다는 온천과 산해진미를 내는 여관이 준비해 방문객의 발길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심신(心身)을 깨어나게 하는 온천, 오래됐지만 편안하고 고즈넉한 여관, 미각을 사로잡는 일본 정식(가이세키·會席). 일본 여행에서 누구나 고대하는 세 가지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허전한 느낌이 든다. 규슈(九州)에 감춰진 듯 자리한 사가현의 소도시 우레시노를 찾는다면 기대한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우레시노에는 지명과 관련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한 황후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을 들렀는데 강에서 뜨거운 물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상당한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가자 상처가 이내 아물었다. 이를 본 황후는 기쁜 나머지 ‘우레시이!’(嬉しい, 기쁘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곳에는 ‘우레시노’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유 빛깔’로 뽀얗게 피어나는 피부

여행자들이 우레시노를 찾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온천이다. 1천300년 역사의 우레시노 온천은 미용과 건강에 좋아 시마네(島根)현의 히노카미(斐乃上) 온천, 도치기(栃木)현의 기쓰레가와(喜連川) 온천과 함께 ‘3대 미용 온천’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 온천수는 약알칼리성으로, 솟을 때 온도가 85~95도로 매우 뜨겁다. 또 나트륨 성분이 있어

피부에서 분비되는 노폐물을 제거해준다고 한다. 류마티즘, 신경통, 피부병, 빈혈 등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온천에 몸을 담그면 피부를 한 겹 벗겨낸 듯 살결이 보들보들해지고 뽀얗게 돼 ‘우유 빛깔’ 송중기나 아이유가 부럽지 않을 정도다. 온천욕은 저녁 식사 전후 그리고 다음날 아침 등 하루 꼭 세 번을 하고, 수건으로 두드리듯 물기를 말려야 효과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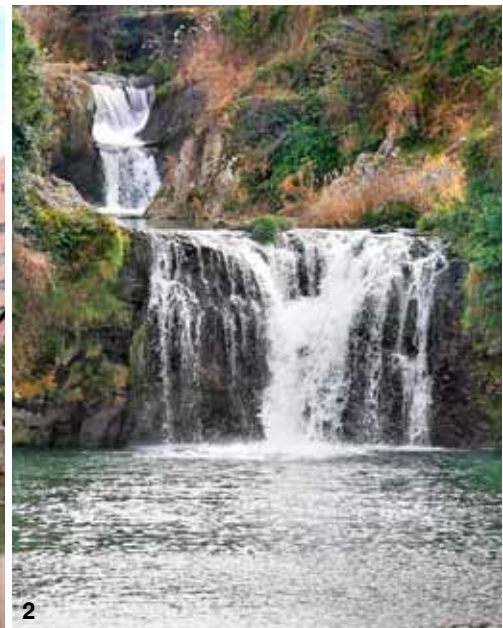
오래된 온천 마을답게 고풍스럽고 정갈한 도심에는 온천탕을 갖춘 여관이 즐비하다. 특히 우레시노 강변에 있는 유서 깊은 여관의 노천탕에서는 아름다운 강줄기를 감상하며 피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온천욕을 만끽할 수 있다.

거리에는 여행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무료 족욕탕도 있다. 족욕탕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뜨끈하고 매끄러운 온천수가 여독(旅毒)을 풀어줘 ‘기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인근 나가사키(長崎)에서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대학생 무로이치(21)양은 “이곳 온천수는 미끌미끌한데 온천욕을 하고 나면 피부가 좋아진 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도시대에 이곳 온천을 유럽에 소개한 독일 의학자 프란츠 시볼트를 기념해 만든 공중 온천 시설인 ‘시볼트 탕’에서는 단돈 성인 400엔, 어린이 200엔에 온천을 즐길 수도 있다.

1, 2, 3, 4 풍광 수려한 우레시노 강 주변으로 전통 여관이 들어서 있다. 5 우레시노의 역사를 알려주는 안내판. 6 공중 온천 시설인 ‘시볼트 탕’. 7 무료 족욕탕에서 족욕을 즐기고 있는 여성들. 8 족욕탕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온천수.



2 온천공원에서 바라본 고즈넉한 풍경.
2 도도로키 폭포, 3, 4 우레시노 차의
사배지와 녹차, 5 화사한 분위기의
우레시노 부겐하우스.



잔잔한 강과 폭포가 있는 풍경

우레시노 도보 관광은 족욕탕이 있는 유유(湯遊) 광장이나 유슈쿠(湯宿) 광장에서 출발해 주변을 돌아본 후 남쪽으로 이동해 강변을 따라 가보는 것이 좋다.

유슈쿠 광장 족욕탕에는 온천수의 열기로 찜질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광장 북쪽에는 용왕의 딸을 모신다는 도요타마히메(豊玉姫) 신사가 자리하고 있다. 용왕의 딸은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져 '피부의 산'으로도 불린다. 신사에는 또 메기 조형물이 있는데, 참배를 하고 만지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여성들이 많이 방문한다.

유유광장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시볼트 탕을 지나 우레시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온천공원이다. 잔디가 깔린 정갈하고 작은 공원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고요한 수면에 반영되는 평화로운 정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강줄기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하얀 물줄기를 시원하게 쏟아내는 도도로키 폭포(轟の滝, 소리가 크게 울리는 폭포)가 나온다. 수려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강변길은 '제주올레'를 본떠 만든 '규슈올레' 구간의 일부이기도 하다. 11m 높이에서 쏟아져 내린 폭포수는 수면에 부딪혀 하얀 포말을 일으키고 이름처럼 커다란 소리로 귀청을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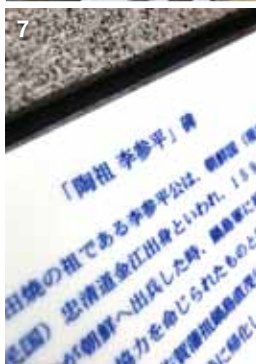
깊은 맛 전하는 고품질 녹차

일본을 대표하는 차 생산지는 시즈오카(静岡)현, 가고시마(鹿児島)현, 미야자키(宮崎)현, 후쿠오카(福岡)현 등이다. 시즈오카를 제외하면 모두 규슈에 있다. 사가현 우레시노도 차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일본 전국 차 품평회에서 2009년부터 5년간 최고 품질을 인정하는 농림수산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에도시대(1603~1867) 말기에 미국과 영국에 첫 수출한 차도 이곳에서 생산된 것이었다고 한다.

우레시노 시내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내 길가와 비탈을 차나무가 뒤덮고 있는 초록빛 풍경이 펼쳐진다. 구불구불 계곡을 따라 차밭이 들어선 모습이 영락없이 우리나라 차 사배지인 경남 하동군 화개면을 떠오르게 한다.

계곡 끝자락에는 단연 돋보이는 커다란 차나무가 서 있다. 바로 340여 년 전 심어진 우레시노 차의 조상이다.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차나무는 높이가 4.6m, 뽕아나간 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80㎡에 이른다. 사가현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킨사란칸'(嬉茶樂官)에서는 차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차 마시기와 차 염색 등도 체험할 수 있다.

도심 남쪽에는 화사한 빛깔의 식물로 치장된 '우레시노 부겐하우스'도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곳으로 천장이 높은 온실에서는 빨강, 분홍, 노랑, 주황, 하얀색 등 다채로운 빛깔의 부겐빌리아가 방문객을 맞는다. 부겐빌리아는 남미가 원산지로 꽃이 아닌 잎이 다양한 빛깔을 내는 식물이다. 언제 방문하든지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1 도자기로 치장된 스에야마 신사의 도리이.
2, 3, 4 도자기로 제작된 등과 고마이누 상, 향아리.
5 스에야마 신사 본당.
6, 7, 9 도조 이삼평 비와 안내문. 8 신사에서 판매하는 점괘가 담긴 종이.

없었다. 수년간 좋은 도자기 원료를 찾아 헤매던 그는 1616년 마침내 아리타에서 도석(陶石)이 있는 산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일본 최초로 백자를 굽는 데 성공했다.

도자기의 신이 된 조선 도공

푸른 산줄기의 품속에 기다랗게 들어앉은 인구 2만 여 명의 아리타는 작고 조용하고 정갈하다. 폭이 좁은 도로를 따라서는 그릇, 찻잔, 수저, 각종 기념품 등 소박하고, 때론 화려하며, 때론 깜찍한 도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서 방문객의 발길을 붙든다.

아리타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는 죽어서 신(神)으로 모셔진 이삼평을 기리는 스에야마(陶山) 신사와 기쁨비가 자리하고 있다. 신사로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서는 일본의 산수(山水)를 푸른빛으로 채색한 흰색 자기 등(燈)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다.

신사는 온통 자기로 치장돼 있다. 입구에는 자기로 만든 높이 3.65m의 거대한 도리이(鳥居, 신사의 경계를 표시하는 문)가 서 있고, 괴수인 고마이누(狛犬)는 협상곳은 표정으로 방문객을 바라본다. 향아리와 등도 온통 자기로 제작돼 있다.

신사 옆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도조(陶祖)의 언덕’이다. 꼭대기에는 ‘도조 이삼평 비’(陶祖李參平碑)가 음각된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다. 1917년 신사에 신위를 모실 때 함께 세운 것이라고 한다. 언덕에서는 마을 전경과 함께 멀리 도석을 캐던 곳을 볼 수 있다.

아리타, 조선 도공의 숨결 깃든 마을

이마리(伊万里) 도자기는 에도시대에 유럽을 열광시킨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이다. 이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조선 도공이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들은 멀리 섬나라에서 도예의 꽃을 활짝 피웠다.

북부 해안 도시 가라쓰(唐津)에서 남쪽으로 가면 한동안 평온한 전원이 펼쳐지고, 이마리란 마을을 지나면 계곡을 따라 난 비탈진 도로가 산골마을인 아리타(有田)까지 이어진다. 이마리 부근부터 아리타까지는 도로변에 푸른빛 자기를 이용한 그림과 조형물이 있어, 이곳이 ‘일본 도자기의 요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마리는 아리타와 가라쓰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배에 실리던 수출항이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수출항의 지명을 따서 유럽에서는 ‘이마리아키’(伊万里焼)라고 불렸다.

하지만 일본 자기의 발상지는 아리타다. 400여 년 전 이곳을 지배하며 조선 침략에 참여했던 일본 장수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는 전란 후 퇴각하며 조선 도공 150여 명을 끌고 갔다. 이 중에는 일본 도자기의 시조인 이삼평(李參平, ?~1655)도 있었다.

나베시마는 처음 이삼평에게 가라쓰 인근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좋은 흙이



1 아리타 시내에는 도자기 상점이 즐비하다. 2 아리타야키 고젠에 전시돼 있는 찻잔들. 3, 4, 5, 6 아리타관과 아리타야키 고젠에서는 다양한 도자기 작품을 만날 수 있다. 7, 8 아리타 도자기 공원.



도자기를 감상하고 음식을 즐기다

마을 중앙에 있는 전통 문화 교류 플라자인 아리타관(有田館)은 도자기 공예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자기로 만든 다양한 인물상을 비롯해 밥상, 찬합, 경대, 보석상자 등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수준 높은 작품이 진열돼 있어 아리타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엿보게 한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초로 도자기로 만든 인형을 이용해, 아리타에 전해지는 민화를 소재로 하는 꼭두각시 인형극도 볼 수 있다. 2층 카페에서는 모양과 빛깔이 제각각인 도자기 커피 잔 120개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커피를 즐기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아리타 도자기에 음식을 담아내는 식당도 여럿 있다. 카레 전문점인 갤러리 오오타(創ギャラリーおおた)는 도자기에 담긴 카레를 먹고 나면 새 도자기를 가져갈 수 있게 포장해 주고, 닭고기 요리를 내는 아리타야키 고젠(有田焼五膳)은 도시락 모양 그릇과 접시 등 도자기 5개에 음식을 낸다. 또 에도시대에 도자기 보호를 위한 장소였던 혼진(本陣)에서는 하얀 푸딩 같은 모양의 향토 두부 요리인 '고도우후'를 도자기 그릇에 담아낸다.

특히 아리타야키 고젠에서는 고도우후와 채소 절임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일본 전역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진열된 수많은 도자기 잔 중 직접 고른 잔에 담겨 나오는 커피나 차를 즐기는 맛도 특별하다.

도자기 고장에 재현된 유럽의 궁전

아리타 남쪽 외곽에 있는 '아리타 도자기 공원'은 전성기의 아리타 명품 도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18세기 초 바로크 건축을 대표하는 츠빙거 궁전을 재현한 건물의 모습에는 허가 내들려질 지경이다. 건물의 육중하고 미려한 외관을 고스란히 옮긴 것은 물론 곳곳을 장식한 조각도 기품이 있고 정교하다.

궁전 건물 안쪽으로 들어서면 황금색 분수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십자형 정원과 여신의 조각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궁전 내부에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유신 초기까지 수출용으로 제작한 도자기와 세계의 명품 도자기가 전시돼 있다.

공원에는 이밖에도 유럽풍의 건물이 있고, 초벌 그림 그리기와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과 '걸리버 여행기', '톰 소여의 모험' 등 일본 동화책에 삽화를 그린 이마리 출신 화가 고가 아소오(古賀 亜十夫)의 삽화와 유화 일러스트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있다.

아리타에서는 매년 이삼평을 기리기 위해 도조제(陶祖祭)를 열고 있다. 올해는 아리타 도자기 400주년을 맞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성대한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약 4km에 걸쳐 도자기 상점이 문을 열고, 노점 500여 개가 들어서 아름다운 아리타 도자기를 한번에 감상하고 구입하기 좋다.





가라쓰, 고즈넉한 풍경 간직한 고도

가라쓰는 북쪽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항구도시다. BC 3세기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에 의해 청동기 문명과 벼농사 기술이 전해졌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의 출병기지였다. 조선 도공에 의한 일본 도자기의 제작도 바로 이곳부터 시작됐다.



1 가라쓰 성에서 바라본 가라쓰의 전경. 2 학을 연상케 하는 가라쓰 성. 3, 4, 5 스테이크 하우스 하치. 6, 7 가라쓰 버거. 8 가라쓰 자기 전에 커피나 차를 따라내는 카페 루나.



항구도시 가라쓰는 평평해 보인다. 북쪽 가라쓰 만(灣)으로 유입되는, 강폭이 한강처럼 넓은 마쓰우라(松浦) 강 양쪽의 평평한 땅에 형성된 도심에는 시야를 가로 막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고, 북쪽으로는 드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라쓰에서 유독 홀로 두드러지는 건축물이 있다. 바로 가라쓰 성(城)이다. 마쓰우라 강이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의 왼쪽 언덕 위에 들어선 하얀 성은 웅장하고 우아하다. 마치 학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이 성은 송림(松林)과 어우러진 모습이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이 보인다 해서 '마이즈루(舞鶴·춤추는 학) 성'이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성은 가라쓰의 초대 번주 데라자와 히로타카(寺沢広高)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인 1602년부터 7년에 걸쳐 건축됐다. 데라자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축성한 나고야(名護屋) 성의 건축을 담당하며 출세한 인물이다. 임진왜란 이후 가라쓰 번주가 된 그는 버려진 나고야 성의 부재를 이용해 가라쓰 성을 쌓았다.

성 안에는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고, 최상층 전망대에서는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가라쓰 시내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매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성에서는 벚꽃이 만개해 화사함을 더하고, 7월 20일 전후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미각을 사로잡는 미식 도시

가라쓰 성 동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는 국가 특별명승지로,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술밭 중 하나인 니지노 마쓰바라(虹の松原)가 있다. 초대 번주 데라자와가 바람과 파도를 막기 위해 조성한 길이 4.5km, 폭 500m의 송림에는 소나무 100만 그루가 서 있다. 방문객들은 소나무가 터널을 이룬 한적한 도로를 자동차로 달리거나 숲속을 가닐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가라쓰의 명물 버거 때문이다. 소나무 숲 속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복고풍 버스에서는 바삭한 빵에 햄, 치즈, 계란, 패티 등을 넣은 50년 전통의 특별한 버거를 먹을 수 있다. 자동차를 타고 온 고객에게는 버거를 자동차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니지노마쓰바라 동쪽에서는 일본의 유명한 철판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스테이크 하우스 하치(ステーキハウス鱈)에서는 스테이크와 해산물, 채소를 손님 앞에서 직접 조리하며 불 쇼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는다. 버섯, 채소와 함께 구운 소고기 스테이크, 서양식 수제 디저트로 구성된 코스 요리, 감칠맛나는 햄버거스테이크, 바다 가재 등도 즐길 수 있다. 이 식당은 올해 한국에도 매장을 열 예정이다.

2005년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일본 최고의 아침식사'로 선정한 두부 요리를 가라쓰 도자기에 담아내는 210년 전통의 가와시마 두부(川島豆腐), 가라쓰 도자기 전에 차나 커피를 따라주는 카페 루나(Luna)도 빼놓을 수 없다. ⑦

INFORMATION



사가현은 일본 여행에서 누구나 기대하는 온천, 여관, 음식에 고품질 차를 즐기고 아름다운 도자기까지 감상할 수 있는 오감 만족 여행지이다.



위치
사가현은 규슈 북부에 있는 대도시인 후쿠오카와 나가사키 사이에 자리한다. 북쪽으로는 대한해협을 바라보고, 남쪽에는 아리아케(有明) 해를 끼고 있다.



가는 방법
티웨이항공이 매주 화·금·일요일에 인천-사가 구간을 직항 운행한다. 인천에서는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해 사가에 오후 4시 10분에 도착하며, 복항편은 오후 5시 10분에 출발, 오후 6시 30분에 돌아온다. 부산에서는 비행기, 고속선, 페리로 후쿠오카까지 간 후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페리로 간 후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현지 이동 방법
사가현에서는 매주 화·금·일요일에 JR하카타역, 온천 여행자인 다케오(武雄)와 우레시노, 사가공항을 운행하는 현지 투어 버스인 '사가 쿠루쿠루 셔틀'(www.kurukurubus.com)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둘러볼 곳



유도쿠 이나리(祐徳稲荷) 신사
우레시노 동쪽 가시마(鹿島)시에 있는 일본 3대 이나리(곡식의 신) 신사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 곡물과 상업의 신으로 여겨지는 여우를 모시고 있다. 매년 1월 1일 일본의 수많은 사업가가 방문해 사업 번창을 기원한다고 한다. 높이 솟은 신사는 붉은빛 외관과 산으로 오르는 길에 세워진 수많은 도리이가 인상적이다.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말 조형물도 있다.

양갱자료관
오기(小坂)시에 있는 무라오카 소훈포(村岡總本舗)는 1899년부터 양갱을 제조해온 곳으로, 양갱자료관에서는 일본 양갱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양갱 제조에 사용된 모양을 내는 틀과 저울, 주판, 주걱 등을 볼 수 있고 팔, 우뭇가시리 등 양갱 재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양갱들이 전시돼 있다. 자료관 옆에서는 양갱을 구입할 수도 있다.



히젠 하마슈쿠
가시마시에 있는 히젠 하마슈쿠(肥前浜宿)는 무로마치시대(1336~1573)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마을이다. 오래된 가옥이 늘어진 고풍스러운 거리에는 청주와 소주를 만드는 양조장 6개가 있다. 마을을 관통해 흐르는 하마가와(浜川)의 물을 사용해 술을 빚어 은은한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조장을 견학하고 시음을 할 수 있다.



사가시 hina 마쓰리
하나 마쓰리(雛祭)는 여자 어린이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매년 3월 3일에 열린다. 17세기에 시작된 hina 인형놀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린 딸이 있는 가정에서는 축제일 며칠 전부터 화려하게 장식한 hina인형과 과자, 떡, 복숭아, 복숭아꽃 등을 준비해 단(壇)에 올린다. 축제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사가시에서는 2001년부터 하나 마쓰리를 성대하게 열고 있는데 일본 전역에서 축제를 보기 위해 찾아든다. 올해는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가은행(古賀銀行), 삼성은행(三省銀行), 후쿠다케(福田家) 등 근대 건축물 5개로 구성된 사가시 역사 민속관 등에서 비단실로 만든 세밀하고 화려한 인형, 천을 이용한 인형 등 다양한 hina인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화려한 전통의상을 빌려 입고 주요 명소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히젠츄우센테이(肥前通仙亭)에서는 일본의 말차를 마시고 차 문화를 배울 수 있다. www.kouyugaibaisao.com

여관과 호텔



가라쓰 시사이드 호텔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일본 풍경 5위에 선정될 정도로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호텔이다. 하얀 모래 해변과 푸른 소나무 숲이 포물선을 그리는 니지노마쓰바라에 있다. 노천탕에서는 바다가 보인다. www.seaside.karatsu.saga.jp



가라쓰 와타야(綿屋)
130년 전통의 요리점 와타와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온천 여관이다. 객실 수는 13개에 불과하지만 노천탕, 히노키탕, 도자기탕 등 다양한 탕이 마련돼 있다. www.e-wataya.com



와타야벳소(和多屋別荘)
일왕이 자주 찾았다는 우레시노 최대 규모 온천 여관이다. 숙박당 5개와 넓은 일본식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9층에 있는 노천탕에서는 우레시노의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www.wataya.co.jp



호요소(豊洋荘) 여관
사가현 남쪽 끝 다라초우(太良町) 해안가에 있는 작은 여관으로, 바다 풍경과 운젠(雲仙) 화산을 감상하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여관은 가니마부시(かにまぶし)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게 요리가 유명하다. 게살 밥을 사들분해 세 가지 소스로 비벼먹은 후 마지막 남은 밥은 차에 말아 먹는다. www.nikani.com



후루유(古湯) 온크리(ONCRI)
사가시 북쪽 산간지대에 자리한 후루유 온천지대의 호텔식 온천 여관이다. 전통 여관 분위기와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실내장식으로 20~40대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온천수 온도는 38도로 예로부터 몸과 마음의 치유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스키 온천에서 볼 수 있는 검은 모래찜질 온천도 구비돼 있다. www.oncri.com